

5박 7일의 짧은 일정에 5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Informatics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을 때, 방문의 목적은 새롭거나 놀라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1주일간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5박 7일 동안 5개 분야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업 방문 및 그 외의 일정에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기술보다는 사람이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가 신선하게 느껴졌고 마음에 들었다.

## Professionalism

## 조직의 목표

## Teamwork

## 일에 대한 애정

SAP Apphaus

Leica

Microsystems

SAP Apphaus

DECK 13

Bezeek Agriport

(Dutch Color)

외 전 부

### 1. Professionalism

전문가로서의 태도라고 표현 한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지한 태도, 꼼꼼함, 치밀함 등을 포함한다. 나는 전문가가 지식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는 태도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SAP Design Service<sup>1)</sup>가 Design Thinking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한 process는 매우 치밀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질문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모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면서도 목표가 뚜렷했다. 사실 Design Thinking이라는 것이 좀 더 예술에 가깝고 단순히 정성적인 분석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SAP의 Design Thinking process는 Optimal Solution을 찾기 위해 짜인 인간을 위한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SAP Apphaus Quentel이 SAP의 design thinking proces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eica Microsystems의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감동이라고 까지 표현 할 수 있다. (사실 꽤 감동 받았다.)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한 팀의 훌륭한 대응 때문일 수 도 있겠지만, Leica는 GIW 방문을 위해 꽤나 많은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다. GIW방문만을 위해 방문 목적에 맞는 발표 내용 구성을 하였고, 분야별 전문가가 별도로 제작한 ppt와 함께 발표를 하였다. 방문 내내 그 공간은 우리 팀만을 위한 공간이었고, 5~6명의 팀이 옆에서 대기하면서 우리의 방문을 주관하였다. Leica는 우리 방문 팀이 진지한 태도로 방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동등한 진지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상대의 진지함에 맞춰서 그 이상의 노력으로 대응을 해주는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고 멋있었다.

### 2. 조직의 목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핵심 목표는 중요하다.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조직의 행동이 일관적이게 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목표는 지엽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괄적이지 않으면 local maximum에서 조직의 발전이 멈출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으면 조직의 지향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세계를 선도하는...” 등등의 표현으로 똑같이 점철된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의 조직목표는 있으나 마나 한

1) SAP Apphaus를 운영하는 주체가 SAP Design Service 이다.

형설수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SAP의 기업 Vision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다. **Run Simple to Improve People's Lives.** Run simple이라는 것을 ERP나 SAP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 최적화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다. SAP는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Design Thinking이라는 문제해결 방법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한편 Design Thinking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문제해결의 최적화라는 목표에 맞춰 사용 할 수 있도록 Working process를 개발했다. SAP가 전통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Design Thinking이라는 분야에서도 선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것이다.

### 3. Teamwork

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DECK13은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개발 환경과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데 DECK13은 자체 개발한 게임 개발 엔진을 통해 Design(Graphic, Animation, 등등), Sound Engineer, AI, 등등.. 의 개발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필요한 툴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소규모 개발사기 때문에 open source 엔진을 사용 할 수도 있었지만, 효율적인 통합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게임엔진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 4. 일에 대한 애정

모든 기관 방문 일정의 사람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를 소개하듯이 신나서 자신의 일/기관 등을 소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사실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주변에 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SAP Apphaus에서 배상훈 교수님이 Quentel에게 부탁한 학생들을 위한 조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말한 것은, 별로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방문한 기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든 GIW 팀원들은 Agriport의 파프리카 농장 사장님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 팀이 47ha에 달하는 온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사장님은 자신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물론 규모의 경제나 마케팅 효과등도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파프리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의 언행에서 그 말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sup>2)</sup>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달의 우려에 대한 대답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기술의 중심에 있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정말 진부한 말로 생각했고, 노동의 종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의미 없는 문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놀라운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표나 태도에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이나 말로 표현하면 진부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 느끼고 내 삶의 지향점에 반영 할 수 있다는 것이 값지다

2) 사장님이 썰어주는 잘 익은 빨간 파프리카의 맛에서 또한 사장님의 파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